

## 10kg 이하의 소아에서 시행한 심실중격 결손증수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흉부외과학교실

변정욱 · 김정철 · 구본일 · 오상준 · 이흥섭 · 김창호

최근에는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심실중격결손증에서는 환자의 체중이 10Kg 이하이거나 1세 이하라도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으며 본원에서도 같은 방침으로 개심술을 시행하여 왔다.

본원에서는 1986년 10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체중이 10Kg 이하인 심실중격결손증환자 88명을 개심술로 수술하여 그 사망률을 환자의 연령, 체중 그리고 폐동맥고혈압의 정도에 따라 비교하였다.

총 사망자 수는 10명이었고(11.4%), 6개월 이하의 환자 수술에서는 14명중 5명이 사망하였고(35.8%),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서는 43명중 4명이 사망하였고(9.3%), 1년 이상된 환자의 수술에서는 31명중 1명이 사망하였다(3.2%). 그러나 폐동맥고혈압의 정도에 의해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수술례에서는 폐동맥고혈압의 정도에 관계없이 사망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10Kg 이하의 저체중 심실중격결손증의 수술은 극심한 심부전이거나, 성장부전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비가역적인 폐혈관 질환을 야기할 정도가 아니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나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